

사회

세계 3대 디자인 상 휩쓴 조선대 조진수·문지애씨

창조와 열정 있으면 '글로벌 톱'

지방대 콤플렉스 딛고 美 IDEA 獨 Reddot·iF Award '3관왕'

“지방대 학생이라도 남다른 창의성과 열정, 노력이 있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3관왕을 차지해 '글로벌 톱'이 됐다. 주인공은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조진수(25·3학년)씨와 문지애(여·23·3학년)씨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함께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15차례나 수상했다.

조씨와 그의 여자친구 문씨는 지난 2009년 일본 OPUS를 시작으로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미국 IDEA, 독일 Reddot, 독일 iF Award를 차례로 수상해 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이들 공모전의 경쟁률은 평균 3000대 1에 이르며, 디자인 전공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수상을 꿈꿀 만큼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

권위를 지니고 있다.

조씨가 처음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중학생이었던 지난 2000년 무렵. 조씨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흥미를 느끼게 돼 전남에고를 거쳐 조선대에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탁월한 실력으로 수 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각종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조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아이디어 도출 및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일단 컨셉트가 잡히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현장에 나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역시 한편으로는 제품의 구매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로 생활용품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조씨의 목표는 일본의 한 생활용품 회사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값이 싸면서도 아름다운 제품을 디자인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다.

적극 맞는 여자친구와의 호흡 역시 공모전 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조씨는 전한다. 조씨는 “여자친구와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거리낌 없이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둘은 처음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난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조씨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지방대생’이라는 한계에 ‘벽’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콤플렉스를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는 “처음 공모전을 준비할 때 마땅히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신이 출현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디자인 코리아 2010'에서 조진수씨와 문지애씨가 자신들이 디자인 한 초록색 고무 깔매기가 부착된 삼푸 용기를 들어보고 있다. 이 고무 깔매기는 평소에는 용기에 밀착되어있으며, 내용을 충전시 뒤집으면 액체가 흐르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는 공모전에 대해 차분히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지방대생 누구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언젠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디자이너가 돼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93) 김종두



나주 모 고교 화장실서

50대 교사 숨진채 발견

10일 오전 8시47분께 나주시 모 고등학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교사 김모(52)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동료교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교사는 경찰에서 “아침에 출근해 화장실에 가보니 김씨가 입과 코 주위에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조선대동창회’ 사용 안된다

범원, 명칭사용금지 재확인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조선대 동창회’가 동창회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현 재판장 ‘조선대 동창회’는 총동창회가 적용된 만큼 옛 재판장 조선대 동창회가 혼동 우려가 있는 동창회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8월 받아들여지자 조선대 동창회는 이의신청을 했었다. 이에 따라 조선대 동창회는 여전히 동창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희기자 choice@kwangju.co.kr

전북 버스피업 조합원 2명 영장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파업을 벌이며 차량으로 회사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S버스회사 조합원 박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버스회사에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해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경찰수기자 knews@



겨울채비 가로수

10일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본격적인 겨울채비를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 중앙로 주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풍에 체감기온 '뚝'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은 바람이 불고 춥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부터 광주와

전남은 해안과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예보했다.

특히 서해안지방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 때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5도, 낮 최고기온은 4도~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 2~4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1~3m로 점차 낮아지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헬멧만 나눠준다고 자전거 이용 늘겠어요?”

광주 자전거 시범학교 ‘헛바퀴’

자치구별 570만원 지원...안전 교육은 1차례 뿐

광주시가 각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 사업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시범학교의 경우 예산 대부분을 헬멧을 사는 데 사용하는가 하면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교육을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등 ‘전시행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부터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에 각각 570만원씩 총 2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자치구별로 자전거 이용시범 시범학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각 자치구는 공모를 거쳐 관내 초·중·고교 가운데 많게는 4곳에서 적게는 2곳을

각각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구는 시범학교를 지정된 뒤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단 한 차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진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지정된 광주 A중학교는 구청이 실시한 안전교육에 20~30명의 학생만 참여했다. 또 다른 시범학교인 광주 B초등학교의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 10명 안밖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자치구는 시가 지원한 예

산으로 해당 2만5000원선인 자전거 헬멧을 구매해 시범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자전거 시범학교인 A중학교 관계자는 “시범학교로 지정되더라도 학교의 입장에서 사고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헬멧 하나 주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유도하는 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범학교 운영으로 당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한계선에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자전거 활용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도박’ 나주교육청 직원 중징계

전남도교육청, 2개월 정지 등

근무 시간에 교육청 당직실 등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은 나주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도박 적발 당시 직접 가담한 나주교육청 행정 6급 직원에게 징계 2개월, 기능직 직원 2명에게 각각 징계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 평소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

의를 받은 행정 6급 직원에게는 감봉 1개월, 직원의 복무 관리를 맡은 행정과장에게는 불문 경고 조치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판을 벌인 당시 교육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이들 직원 5명은 지난 6월28일부터 2개월여 동안 29회에 걸쳐 일과 시간 당직실 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판단을 걸고 속전 속퇴를 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고 도 교육청은 이들을 즉각 해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산 야생조류서 시 추가 확인

익산에 이어 충남 서산지역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로 AI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29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274의 8과 산 5의 1 일대에서 각각 폐사된 채 발견된 수리부엉이 2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정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

반경 10km 이내에는 4개 농가에서 10만2천5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시는 AI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발생지역 중심 반경 10km 이내를 가금류 사육농가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과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내렸다. 또 현장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긴급방역에 나서고 해당 농가에 즉시 자체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이들러 천수만 일대 철새 탐조투어도 중단시켰다.

연남스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with a map of Korea showing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Seoul, Gyeonggi, and Jeonnam.

Life news section (생활 게시판) featuring a notice about a fire at a school (학교 교사) and a notice about a fire at a school (학교 교사) with details on dates and times.

Obituary notices (訃告) for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Kim Gyeong-hwan (김경환) and others, with details on funeral service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the Touch 1 card (Touch 1 카드 출시) by SK,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customers and its status as a membership card.

Advertisement for a pet adoption service (나이트클럽) featuring a dog named 'Sundae' (생다발) and information about adoption fees and contact details.